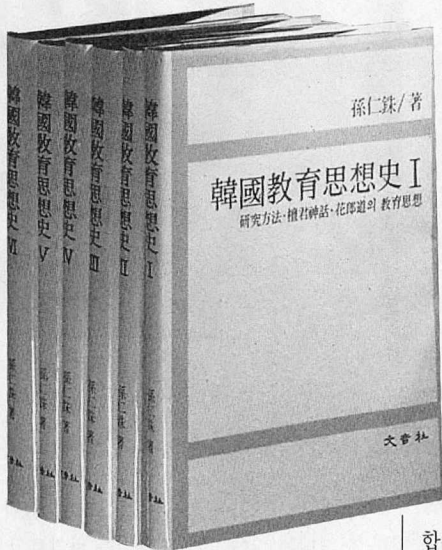


한국 교육사상의 뿌리와 줄기

「韓國教育思想史」전6권 펴낸 孫仁銖교수



교육학계의 원로 손인수교수가 최근 「한국교육사상사」 전6권을 펴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교육사상의 뿌리와 줄기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손교수는 이 책을 쓰는 데 살아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과 세계의 곳곳을 직접 답사·순례했다.

올바른 교육문화풍토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孫仁銖교수(57·교원대 제1대학장)가 최근 「韓國教育思想史」(문음사) 전6권을 펴냈다.

특별한 활동 외에는 거의 연구실에서만 생활하며 집필에만도 6년 이상이 걸린 역작이지만, 책을 내놓고 난 손교수는 오히려 담담했다. 앞으로도 연구해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 44년을 교육계에서 활동하는 동안 80여권의 저서를 낸 바 있는 손교수는 앞으로도 '한국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를 내고 싶다고.

“물론 기쁘기는 하지요. 집필하는 동안의 어려웠던 일을 생각하면 영영 울고라도 싶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계의 어두운 현실을 생각하면, 앞으로 해야 할 무수한 작업들이 떠올라 마냥 기뻐할 수도 없게 되지요. 그저 참고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육계도 제자리를 찾으리라 믿습니다. 과일도 제철이 되어야 제 맛이 나는 것처럼, 교육도 제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열심히 양분을 빨아들여야겠지요”

집필에만도 6년 걸린 '발로 쓴' 책

손교수가 언젠가는 이 책을 써야겠다고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30여년 전, 교육계에 투신한지 10년쯤 되어서였다. 그때까지의 교육서적들이 주로 외국의 교육사상가들의 이론만 도입했던 것을 지양하고, 그야말로 한국적인 것을 찾아야겠다고 늘 생각했었던 손교수는 한편으로 한국의 전통사상에 관한 저서들을 꾸준히 내면서, 이 책의 집필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저는 병적일 만큼 한국의 교육문화를 사랑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교육사상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기본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한 민족을 지탱하는 힘이 그 민족의 정신에 담겨 있고, 한 나라의 교육도 그 나라 민족의 정신에 갈무리 형성되기 때문이지요. 이 책도 그러한 맥락에서 씌어졌습니다.”

아울러 손교수는 진정한 민족문화란 지방과 민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책도 지방의 교육사상과 민중교육 내지 민중교육사상을 기반으로 집필했다. 그 민족의 줄기를 끈질기게 이어오는 것은 지방과 민중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이나 제도적 교육의 사상만을 살피게 되면 한국교육사상의 '원형'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향토사에 대한 연구가 황무지상태여서 손교수는 그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무척 어려움이 많았다. 사상사는 확증된 사실의 집성으로 이룩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하지만, 향토사 연구의 부재 때문에 더욱더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답사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실에 걸려 있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그와 같은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20대와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머리로 글을 썼지만, 그 이후로는 발로 글을 썼습니다. 그 교훈을, 대동여지도를 만들어 우리나라 지도의 현실화에 큰 공헌을 했던 김정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전국을 수십 차례 돌아다녔고, 심지어 백두산에 올라가기만도 일곱번 혹은 열세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책 6권을 쓰기 위해 우리나라 국토를 여러차례 순례·답사했습니다. 한국의 국토 그 자체가 한국인의 사유이며, 사상이며, 교육이며, 역사이며,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손교수는 또 이 책을 쓰는데 필요한 유적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국과 에스키모·인디언의 마을을 방문했으며, 남미 잉카문화와 마야 문화의 유적지까지도 직접 찾았다. 불교의 유적지를 조사할 때는 동남아 일대는 물론, 신라의 스님 혜초가 쓴 「왕오천축국전」을 따라 먼지나는 인도 순례도 했었는데, 바라나시의 한 사원에선 거기에 소장돼 있는 큰 지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혜초가 순방한 곳을 지적하는 강의를 듣고 감격한 일도 있었다.

'쉬운 말' 사용에 역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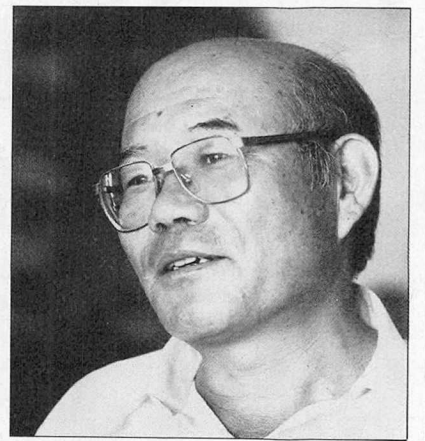
손교수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특히 염두에 두었던 것은 '쉬운 말'의 사용이었다. 그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씌어져야만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다.

“저는 평소 우리 국어는 나의 조국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책에서도 한국의 모든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쓰려고 노력했으며, 어려운 한문은 한글로 풀이하여 읽기 쉽게 고쳐 썼습니다. 한 나라의 정신은 바로 말에 있는 것이므로, 민중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정신문화도 발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교수는 또 이 책에서 고전의 언어들을 오늘날의 생활언어로 해석하여 썼다. 그 이유는 고전의 해석은 역사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만약 한문 문화를 수용한 우리의 조상들이 유교문화나 불교문화를 우리의 언어로 탈바꿈시켰더라면,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문화는 훨씬 더 발전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한국교육사상의 부정론자들은 유교·불교·기독교 등 외래교육사상의 역사적 연원을 찾아, 그것이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사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긍정론자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교·풍속·습관·생활방식 등을 찾아 우리의 교육사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손교수는 지적하면서, 그러나 두 주장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한다. 문화는 이동과 복합으로써 생성하고 변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사상에서 순수 '한국적'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선진문화는 많은 외래문화의 요소를 건전하게 섭취하는 데서 이룩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단군신화·화랑도의 교육사상



「교육사상사」 전 6권을 '발로 쓴'다고 말하는 孫仁銖교수.

②불교의 교육사상 ③유교의 교육사상 ④실학·천주교·동학의 교육사상 ⑤기독교·일제식민지의 교육사상 ⑥대한민국의 교육사상 등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에서 손교수는 우리 고유의 자연종교사상과 무속, 홍익인간이나 화랑도정신 뿐만 아니라, 불교·유교·기독교 등 외래종교사상까지 다루었다.

“한국문화의 뿌리찾기에 힘 기울일 터”

이러한 우리의 모든 문화적 요소를 총망라하여 '한국학'을 새로이 정립하고 싶다는 게 손교수가 오랫동안 가져온 꿈이다. 그런 연구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한국의 가훈」(1984),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1984) 등을 낸 바 있으나, 앞으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한국문화의 뿌리찾기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손교수는 효성이 지극하기로도 유명하다. 이 책의 앞머리에 씌어진 “이 책자를 집필하는 도중에 어머님 곁으로 영원히 떠나신 아버님의 영전에 이를 바치옵니다”라는 문구도 그것을 잘 증명한다. 정신적 지주였던 부친의 작고가 집필 중의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말하는 손교수의 품모는 그레선지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 속에서 한국의 미풍양속이 몸에 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집필 중에는 연구실과 집에서만 생활하지만 살아있는 자식을 얻기 위해 여행도 자주 하고, 체력단련을 위해 가끔씩 테니스도 즐긴다. 특히 그의 테니스 실력은 수준급이다.

끝으로 손교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오늘의 젊은 학생들이 눈코뜰새 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차창용 기자